

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중소기업 NB-IoT 개발 돕는다

〈협대역 사물 인터넷〉

시험센터·전문인력의 컨설팅 지원

“경쟁력 높여 대기업-中企간 상생”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6일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표준 기반의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제품을 중소기업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센터와 전문인력을 지원해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협력 중소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NB-IoT 단말의 개발이 완료되면 TTA가 운영중인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개발지원시험 서비스를 제공받아 국제표준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시험 검증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검증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도록 NB-IoT 시험 인증 전문인력의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6일 경기 판교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LG유플러스 박상봉 IoT품질담당(왼쪽)과 TTA 박용범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NB-IoT 상용화 기술 노하우와 마케팅 등을 지원해 개발 검증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도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T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별도의 시험 환경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화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LG유플러스 박상봉 IoT품질담당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IoT 기반 기술과 마

케팅 역량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상품 경쟁력을 높여 이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017년 전국 시도 지역에 NB-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NB-IoT 기반의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블록체인 도입, 안전 지불 인증”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 간담회

일자리 창출·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외사업 다변화 등 중점과제 발표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6일 “올해 국민 편의 증대와 완벽한 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국민 퍼스트(First), 품질 베스트(Best)’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4778억원, 영업이익 88억원 등 창립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경신했다. 화폐 등 전통적 주력사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일궈낸 성과다.

조폐공사는 이와 같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코스코(KO MSCO) 신뢰플랫폼’ 구축 완료 및 시범서비스 개시, 격이 다른 무결점 제품 생산,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로 미래 선도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제고 통한 해외사업 제품·시장 다변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조폐공사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정원의 5%에 달하는 75명의 청년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4년 50명, 2015년 49명, 2016년 71명, 2017년 60명 등 최근 4

년간 230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또한 ‘코스코 신뢰플랫폼’을 올 하반기 중 구축 완료하고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발급 등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스코 신뢰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조폐공사의 공신력을 결합해 공공분야에서 안전한 지불 인증 수단의 발급과 정보보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외 R&D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사업 제품·시장 다변화를 진행한다.

조용만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기보, 페루에 기술평가보증제도 노하우 전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일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제도를 중남미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페루를 방문해 현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보는 지난해 7월부터 페루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 전수를 위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페루정책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은 페루형 기술평가지표 및 제도, 기술인증 및 보증제도,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한다.

전문가단은 지난달 27일 페루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지설명회에서 페루 솔 생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남미 5개국(아르헨티나·페루·볼리비아·온두라스·콜롬비아)의 보증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중남미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ALIGA(중남미보증



(왼쪽에서 첫 번째)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 (왼쪽에서 세 번째)페루 생산부 장관.

/기보

기관연합)의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기획재정부의 KSP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페루형 기술평가제도의 정책자문 컨설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보는 페루의 KSP 진행경과와 중소기업의 R&D·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보증 및 평가제도를 소개했다. 페루 측은 기술보증기금 제도에 대한 중남미 확대방안과 KSP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솔 페루 생산부 장관은 기보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 관련 페루내 안착을 강조하면서 기보의 기술적 지원과 향후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PTRS)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기보 강낙규 전무이사는 “중남미의 조선 및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내 관련 산업의 블루오션을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보의 관련산업 고객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그간 KSP사업을 통해 베트남, 태국, 페루 등에 전파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술평가 노하우에 대한 전수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의 해외 전수사업은 7만여 고객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술이전 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동구매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계원 가구나산업조합연합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공동구매촉’ 출범… 보증제도 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구매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구매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보증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공동구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김계원 대한가구나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 및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신보·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부예산 15억원, 기업은행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신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해 올해 600억원을 보증발급하고 2000억원의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GC녹십자 육아 지원 등으로 ‘워라벨’ 앞장

사내 보육시설 개원

GC녹십자는 경기도 용인시 목암타운에 사내 보육시설 ‘GC 차일드케어 센터(Childcare Center·사진)’를 개원했다고 6일 밝혔다.

GC녹십자 측은 GC 차일드케어 센터 오픈으로 일과 가정생활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GC 차일드케어 센터’는 대지면

적 2943㎡(890평)에 지상 2층 독채 건물로 지어졌고, 총 정원은 79명으로 제약업계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총 11명의 교사를 배치했다.

센터 내에는 단체 활동을 위한 강당과 특별활동실, 식당, 학부도 대기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고,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서 사무공간 외 별도의 휴게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건물밖에는 아이들



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잔디밭과 놀이터가 조성됐다. 센터 운영시간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식약처

‘마약류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 ‘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안전

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 업자의 취급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점검사항▲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계획▲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박인웅 기자